

나눔의 공간

500권의 「건축사」지가 보여주는 44년의 역사

유정훈 | 우송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Yoo, Jeong-hoon

44년 전인 1966년이 우리나라 건축에서 어떠한 때이었는데 이를 알려면 그리 어렵지 않다. 대한건축사협회의 홈페이지(<http://www.kira.or.kr/>)를 찾아서 로그인 할 필요도 없이, 왼쪽 화면 중간쯤의 6개의 박스 처음에 자리 잡은 '월간 「건축사」'를 클릭해 보자. 새로운 창이 뜨고 목록이 나오는데, 거꾸로 나열된 목록을 보며 내려가다 보면 맨 밑인 1966년에 v.1, n.1, Jul 이라는 쪽지가 보인다. 아마도 7월에 창간호가 나왔던 모양이다. 호기심에 내쳐 눌러보면 그 당시의 기록들이 펼쳐진다. 아! 그 경이로움이란! 협회의 연혁이 궁금하여 해당 아크로벳 아이콘을 누르면 1963년 12월에 협회가 설립된 후의 과정이 드러난다. 66년 5월말까지 전국의 회원 수가 547명이라고 한다.

이렇듯 첫 발행에 애쓰신 편집위원들과 글을 쓰신 집필진들이 아직 생존하여 계실지 잘은 모르겠으나 참으로 멋진 일을 하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그 다음의 감사는 이렇게 디지털 정보화를 하기 위한 기획과 실천이다. 간혹 어찌다가 빠진 듯 건너편 월호도 보이지만 감탄하도록 충실하게 문서화된 목록을 보노라면 야릇한 감동에 빠지게 된다.

호기심이 솟아난다. 필자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진 시기를 더듬어 보면 언젠가 신문에서 흘깃 본 '부여박물관의 왜색사비' 이었다. 분명 이 사건을 월간 「건축사」가 간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하고 찾아보았다. 자료와 함께 있는 검색기능을 통하여 이 일과 관련하여 열렸던 좌담회 내용이 실린 1967년 9월호를 알게 되었다. 무려 24쪽에 걸쳐 협회의 회장단 및 건축사들과 교수 및 종교계로 이루어진 11분의 의견 피력을 읽었다. 철거해야 한다는 단호한 태도도 있고, 고쳐서 쓰자는 온건함도 있다. 그런데 참석자 모두가 이 건물이 일본 것에 대한 모방 또는 영향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설계 당사자인 당시 34세의 김수근 씨는 "부여박물관이 두고 두고 내 죽은 다음에도 산 증거로 남아" 이 건물이 일본 신사의 표절인지 자신의 창작인지를 밝혀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건물은 그럭저럭 남았고, 지금은 그 기능이 다한 채로 존속 여부를 운명에 맡기고 있다. 좌담회의 참석자들은 물론 건축가마저 이 세상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 일에 대하여 뭐라 말할 수 있을까?

내친 김에 더 훑어보자. 창간호는 1966년 6월호, 두 번째는 1967년 4월호라는 꽤 긴 시간의 공백이 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찾을 수 없으나 예나 지금이나 잡지 한호를 내는 것이 뼈를 깎아내는 아픔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내용을 뒤지다 보면 창간호의 제호는 「신건축사(新建築士)」였음을 알게 된다. 두 번째 호 부터는 「건축계(建築界)」로 변경되어 1967년에는 4, 6, 9, 11월의 4권이 발행되었고 지금의 「건축사(建築士)」의 명칭을 가지게 된 1968년과 이듬해인 69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격월로 6권씩, 그리고 197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월간지가 발행되었다. 70년 1월호에 실린 협회 사업계획에서 보면 잡지 발행의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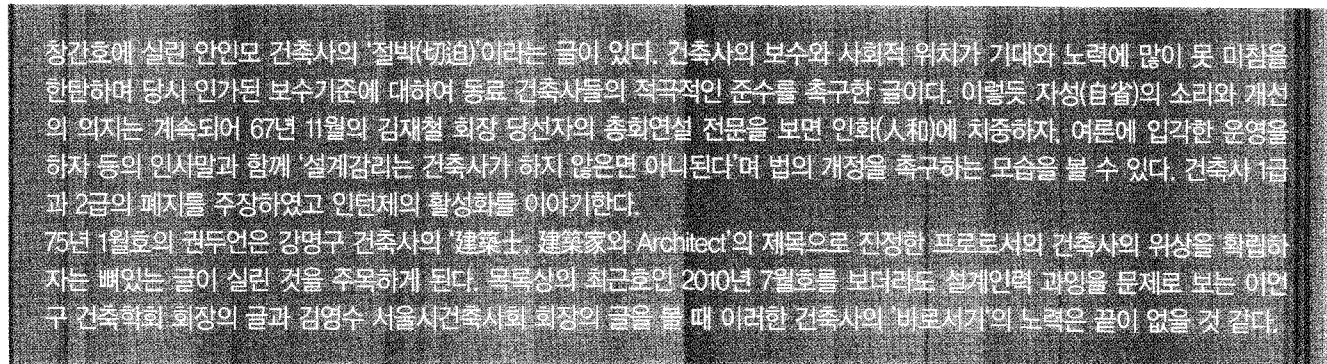
건축잡지로서의 가장 큰 목적이며 수단이라 할 건축작품의 소개는 어떨지? 지금의 '회원작품'이라는 기사 제목은 70년 8월호부터 쓰인 것이고, 창간 당시에는 '작품화보'였으며 이어서 '건축물' '이달의 작품' 등으로 변화하였던 것을 보게 된다. 창간호에는 삼화건축연구소 박성규 건축사의 '3·15 의거 기념탑'과 차경순건축연구소의 '국립과학관', 김경환 건축사의 '이화여대 다락방'이 실렸다. 흑백사진임은 물론이고 매우 간략한 개요 외에는 서술이 없어 건조한 느낌이나 도면은 비교적 충실히 실려서 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내면 매우 좋은 자료집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

되어 대한건축사협회에 강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문득 필자가 대학생이었던 1970년대가 궁금해진다. 75년 3월호를 보면, 이승우 건축사의 서울서부역사, 박성규 건축사의 농산물이용 시험실, 이영희 건축사의 외환은행마산지점합숙소, 정은용 건축사의 남양소금공장 및 손중모 건축사의 문화회관(김일체육관)이 실려 있다.

다음으로 일어나는 호기심은 '그 당시에는 외국 건축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이었을까?'이다. 두 번째 호에 네르비(Nervi)의 소개가 보이고 68년 5월호에 와서야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의 건축동향이 소개됨을 볼 수 있다. 이후에 소개되는 외국 건축가로 리처드 노이트라,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미노루 야마사키 등이 다루어졌는데 아마도 일본의 유사잡지에서 옮겨온 듯 출처가 분명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 1972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해외작품에 대한 소개가 연재되고 있다, 정보의 출처가

않은 이유로 외국의 일개 업체로 넘어가야 하는 것에 대한 성토가 이루어지고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김수근 낭독으로 채택되었다. 정부청사 바로 앞에서 버티고 있다가 1995년에 철거된 중앙청(조선총독부)과도 빚대어 제2의 조선총독부 아니냐던 외국인 설계의 정부청사는 결과적으로 건축인들의 이러한 목소리가 묵살된 채로 70년에 준공되어 아직까지 남아있다.

창간호에 실린 안인모 건축사의 '절박(切迫)'이라는 글이 있다. 건축사의 보수와 사회적 위치가 기대와 노력에 많이 못 미침을 한탄하며 당시 인가된 보수기준에 대하여 동료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준수를 촉구한 글이다. 이렇듯 자성(自省)의 소리와 개선의 의지는 계속되어 67년 11월의 김재철 회장 당선자의 총회연설 전문을 보면 '인화(人和)에 치중하자, 여론에 입각한 운영을 하자' 등의 인사말과 함께 '설계감리는 건축사가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며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



보이기 시작하는데, 타임지(?)를 비롯하여 미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 심지어는 싱가포르의 건축 잡지들이다. 그러나 정작 궁금한 건축가의 이름 및 건립시기 등이 자주 누락되는 것이 초창기의 모습이다. 꼬르뷔지에의 건물이 보이는가 하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의 아직까지 유효한 건축들이 소개되는 한편, 가끔 '이것이 왜 실렸을까?'하는 의구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있다. 많은 정보 중에서 편찬위원들이 소개하고픈 것, 그래서 고른 것은 당시 건축계가 동경하였을 모더니즘의 모습이었을 터로 이해된다. 최근에 실리는 현지 특파원의 소신 있는 기사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도 한다.

68년 2월호에는 모처럼 우리나라 전체 건축인의 단결된 모습이 보였다. 세종로에 세워질 정부종합청사가 2년 전 설계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나상진 건축사의 작품을 기술부족이라는 이유로 외국 업체인 PAE의 안으로 대체한다는 것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3월호에는 이에 대한 현장 리포트와 김종업 씨의 글을 실어 민족의 상징으로서의 정부종합청사가 석연치

다. 건축사 1급과 2급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인터넷의 활성화를 이야기한다. 75년 1월호의 권두언은 강명구 건축사의 '建築士, 建築家와 Architect'의 제목으로 진정한 프로로서의 건축사의 위상을 확립하자는 뼈있는 글이 실린 것을 주목하게 된다. 목록상의 최근호인 2010년 7월호를 보더라도 설계인력 과잉을 문제로 보는 이연구 건축학회 회장의 글과 김영수 서울시건축사회 회장의 글을 볼 때 이러한 건축사의 '바로서기'의 노력은 끝이 없을 것 같다.

역사적으로 만 나라들은 독재시대의 건축이 나중에 와서 관광의 주 수입원(主收入原)이 되는 아이러니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군사독재의 시대로 기억하는 6, 70년대와 80년대의 건축은 어떠한이었는가? 기념비적인 대형 건축물이라면 63년에 세워진 남산자유센터, 67년의 세운상가 이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75년 9월에 준공되었고, 세종문화회관이 78년에, 86년에는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과 과천의 현대미술관이, 그리고 천안의 독립기념관은 88년에 지어졌다. 이러한 기

록들도 잡지에는 충실히 담겨있다. 언젠가 다시 꺼내어 되새김질해야 할 일이다. 히틀러에게 슈페어가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그러한 건축가가 있었는지? 앞에 나열된 건물들 중 김수근의 작품이 여럿 보인다. 사실 이것들 말고도 더 있긴 하다. 그렇다면 그가 바로 그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현상설계경기는 예나 지금이나 큰 이슈를 일으킨다. 현상설계로 검색을 하면 271건이 나오고 설계경기로 검색을 하면 264건이 나온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을 보면 1966년 7월, 즉 창간호에는 최창규 건축사의 현상설계, 이러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으며 67년 6월에도 이승우 건축사는 설계경기의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글들이 현상설계제도의 개선을 바라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도 여러 차례 열리며 소리를 모아 2000년대 들어서는 문제제기가 많이 줄어들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국책 현

안화를 남발하는 버릇을 가진 당시의 정부를 꾸짖는 것인데 이러한 소리가 들렸음이 보이는 바, 92년 7월호에 건축허가규제를 협회차원에서 건의하여 관철하였다는 소식을 실었다. 이는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건축사」지의 늘 첫 부분을 이루는 기사가 있다. 칼럼(Colum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언제부터 이 기사가 시작되었는지 찾아보니 93년 2월호부터인 것 같다. 첫 기고자는 이광형 KAIST 전산학과 교수이다. '기술이 존중되는 사회'라는 제목의 글인데, 그 내용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기술자를 우대하는 정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남대문의 설계자를 묻는데 대답할 수가 없다. 피라미드와 로마 빵때운을 각각 누가 설계하였는지 우리는 듣고 배워 하는데, 오늘 배달된 유력 일간신문에 실린 건축기사에서 건축가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는 나라인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인가?

이렇게 보면 이 500권의 아카이브, 더 늘어날 역사의 저장은 참으로 소중하다. 여기에는 오직 우리나라 건축계의 발전을 위한 총정으로 임한 모든 기고자의 외침과 속삭임이 담겨있다. 비록 더 세련된 다른 잡지에 비하여 거칠고 투박한 모습이지만 현장에서 뛰는 건축사들의 마음이 담겨있어서 더욱 생생하다. 역사를 거듭하여 2050년대에는 1,000호를 맞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때까지 이 잡지는 지금 모습이던 변모된 모습이던 같은 소리로 노래할 것을 믿는다.

상설계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리는 보인다. 오래전의 국립종합박물관(현 민속박물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사당,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을 거쳐 오며 최근의 노들섬, 서울시청사 등에서 보여진 우리의 현상설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발주자의 지침인데, 이는 건축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민간의 건축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건축인의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90년 10월호에 건축 3단체의 통합을 바라는 글이 실렸다. 우루과이라운드라는 당시에는 생소하고도 느닷없는 파도가 밀려온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긴 하였으나 쓸데없이 흩어져 있는 힘을 모으자는 지극히 단순하며, 순수한 동시에 꾀이나 당연한 제안이 아닐 수 없는데, 2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 통합은 요원한 이야기이다. 시도는 꾸준한데 실천이 되지 않는다. 건축학회는 놓고서라도 현재의 3단체 통합은 정녕 이를 수 없는 꿈인가? 기다리면 되겠지. 말 들어보면 분명, 통합을 바라는 마음이 월등 많으니까.

91년 11월호를 보면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대한 두 개의 글이 눈에 띈다. 이영희 건축사의 글과 이갑준 건축사의 글이다. 경제를 위해 만만한 것이 건축인 듯 일관성 없이 규제와

93년 4월호에는 분당의 주택전람회에 대한 글이 실린다. 이 사업을 주도한 분이 글을 쓰신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전람회의 취지와 방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실 현장에 가보면 분당의 자투리 공간을 채우기 위한, 지극히 상업적 목적으로 시작되었음이 누구에게나 드러나는데 그러한 고백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면, 또 건축문화의 새로운 실험장이며 살아있는 건축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라면 이 주택전람회를 잘 기억하는 분 누구 계신가요? 아마도 이러한 작업의 파급으로 인하여 헤이리 마을이 조성되게 된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건축사」지 검색기능에서 '헤이리'를 입력하면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축사협회는 헤이리를 인정하지 않나?

94년의 성수대교와 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건축인의 위상은 크게 실추되었다. 이에 대하여 「건축사」지는 침묵하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고백하였고(94년 12월호, 장웅재), 자정(自淨)을 위한 특집(95년 8월호)이 있다. 참으로 아프고, 다시 떠올리기 힘든 일이나 그로 인하여 우리의 기술과 안전에 대한 기본개념은 괄목하게 진보되었음은 분명하다.

아무래도 90년대 중반 이후의 건축계에는 지금보다도 더 위

기의식이 팽배하였던 것 같다. 대형건축주의 무분별한 요구로 외국의 건축설계회사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 자주 대두되었던 시기였으므로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이 거론되었고(96년 12월호), 외국사와의 공동설계에 대한 두 차례의 기획특집(97년 1월호와 3월호)이 보인다. 그러나 40페이지가 넘게 할당된 12명의 글과 7인 좌담회를 훑다보면, '우리가 주도하면 된다'는 의식의 깨어있음과 자신감이 드러난다. 6, 70년대의 어쩔 수 없던 열등감과는 사뭇 다른 의연함이 보인다. 이제는 우리가 풀리지 않음이 재확인된 계기가 아닐까 싶다. 어느덧 2000년대에 들어와 수백 명의 설계인원을 거느리는 굴지의 회사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직도 스타 디자이너에 대한 대기업의 저자세가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이 또한 머지않아 극복될 것이 분명하다.

2009년 7월호에는 모처럼 흥미로운 토론회 현장이 실렸다. '건축설계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있다.'는 당연한 것을 투쟁해서 얻어냈어야만 한 상황을 계기로 '왜 이래야 했었는지?'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짚어보는 시간이었다.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야기다. 내 것을 기꺼이 주고서 뿌듯했던 것이 아니라 뺏기고도 '뭐 어때' 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닐 것이다. 권리는 문화를 창조한다. 토론회 끝 부분에서의 저작권위원회에서 나오신 김현철님의 말은 큰 울림이 있다. "현실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건 비겁하지 않습니까!"

「건축사」지는 또한 건축사들에게 기술교육적 내용을 전하는 역할을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 호부터 한국공업규격(KS)에 대한 연재가 실리고, 건축재료 및 디테일에 대한 기사가 자

주 보인다. 방수재, PC공법, 단열재, 법규기준 등이 계속하여 소개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것들은 찾아볼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기술적인 것은 교과서에서 이미 많이 다루고 그에 대한 전문서적 및 잡지도 활발히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건축사」지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2010년에 새로 기획된 것으로 '작품 리뷰'가 있다. 필자와 박인수 건축사가 열심히 일하는 젊은(?) 건축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들이 전체 건축사들을 대표한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으나 공통적인 문제, 또 각자 처한 상황 및 연수의 과정 향후의 바람 등을 청취하고 독자와 공유한다면 많은 공감 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회를 거듭하다보니 다소 습관적인 모습이 느껴지기에 이제 열 번을 채우고 그만 하려한다. 지방으로 찾아다니지 못한 것이 그곳 건축사들에게 못내 죄송하다.

이렇게 보면 이 500권의 아카이브, 앞으로도 더 늘어날 역사의 저장은 참으로 소중한다. 여기에는 오직 우리나라 건축계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임한 모든 기고자의 외침과 속삭임이 담겨있다. 비록 더 세련된 다른 잡지에 비하여 거칠고 투박한 모습이지만 현장에서 뛰는 건축사들의 마음이 담겨있어서 더욱 생생하다. 역사를 거듭하여 2050년대에는 어느덧 1,000호를 맞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때까지 이 잡지는 지금 모습이던 혹은 변모된 모습이던 같은 소리로 노래할 것을 믿는다. 공간에서 인심 난다고 한다. 쌓이기만 하는 창고가 아니라 누구든 퍼갈 수 있는 곳, 여기야말로 풍성히 나누는 공간이 아니고 그 무엇이라! ■